

2018년 10월 1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S&P500, 4 일 연속 하락

### ①국채금리 하락 ②미-중 무역분쟁 ③브렉시트 협상 타결 기대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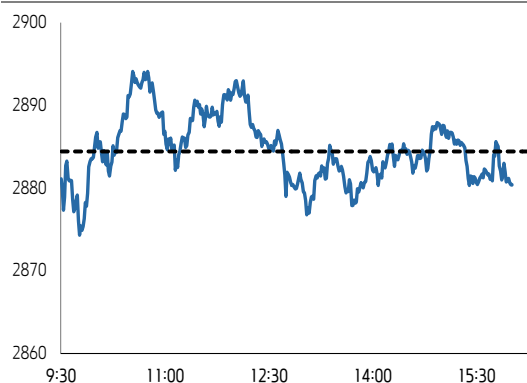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이탈리아 이슈 및 국채금리 상승여파로 하락 출발.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타결을 하고 싶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한 여파로 산업재 업종도 부진. 다만, 월마트를 비롯해 일부 경기 소비재 업종과 정유업종이 강세를 보이자 낙폭 제한. 특히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 전환 성공하기도 하는 등 보험권에서 등락(다우 -0.21%, 나스닥 +0.03%, S&P500 -0.14%, 러셀 2000 -0.47)

미 증시는 ①국채금리 하락 ②미-중 무역분쟁 ③브렉시트 협상 타결 기대 등이 영향. 미 국채금리가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장 시작 전 “앞으로 3 번의 금리인상이 합리적” 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연준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다가서고 있다” 라며 금리인상 횟수 증가 우려감을 완화. 더불어 국채금리가 7년내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매물 출회된 점도 하락 요인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타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대화를 수 차례 취소 했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2,67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다” 라고 경고. 한편 이러한 미-중간의 무역분쟁여파로 도료, 코팅재 만드는 특수 화학 회사인 PPG 가 18 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둔화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급락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임. PPG 관세 발효 등으로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중국 등에서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언급.

한편, 미 증시는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한때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음. 이는 영국과 EU 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견해 차이가 좁혀지며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인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양측은 15 일(월)까지 대략적인 협상을 한 이후 18~19 일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볼 것으로 전해짐. 이 영향으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253.83	-0.60	홍콩항셱	26,172.91	-0.11			
KOSDAQ	767.15	-0.85	영국	7,237.59	+0.06			
DOW	26,430.57	-0.21	독일	11,977.22	+0.25			
NASDAQ	7,738.02	+0.03	프랑스	5,318.55	+0.35			
S&P 500	2,880.34	-0.14	스페인	9,260.50	+0.67			
상하이종합	2,721.01	+0.17	그리스	626.17	-2.43			
일본	23,469.39	-1.32	이탈리아	20,062.25	+1.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화학업종 부진

마이크론(-1.86%)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스파이칩' 관련 보도 이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며 하락을 이어갔다. 웨스턴디지털(-2.21%)은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게이트(-4.01%)도 동반 하락 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6.55%)은 3분기 마일당 총 수익이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했으나 하락 했다. 시장에서 1~3% 전망했던 것에 비해 최저치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상단이 정체된 점이 부담을 줬다. 더불어 연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도 영향을 줬다.

화학업체인 PPG(-10.06%)는 3분기 실적을 통해 관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 수요 감소 등이 악영향을 줬다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론덴바젤(-4.33%), 듀폰(-3.67%) 등도 동반 하락 했다. 반면, 월마트(+2.52%)는 도이체방크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스타벅스(+2.07%)는 헤지펀드가 지분 확보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31%	대형 가치주 ETF	-0.31%
에너지섹터 ETF	+1.17%	중형 가치주 ETF	-0.48%
소매업체 ETF	0.00%	소형 가치주 ETF	-0.10%
금융섹터 ETF	-0.39%	배당주 ETF	-0.45%
기술섹터 ETF	+0.36%	변동성 ETF	+1.7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86%	대형 성장주 ETF	+0.06%
인터넷업체 ETF	-0.22%	중형 성장주 ETF	-0.55%
리츠업체 ETF	+0.34%	소형 성장주 ETF	-0.73%
주택건설업체 ETF	-2.87%	신흥국 고배당 ETF	+0.21%
바이오섹터 ETF	-0.4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37%
헬스케어 ETF	+0.17%	하이일드 ETF	+0.11%
곡물 ETF	-0.11%	물가연동채 ETF	+0.28%
반도체 ETF	-0.19%	Long/short ETF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76.72	+0.99%	+1.20%	+6.79%
소재	348.98	-3.40%	-5.31%	-5.82%
산업재	655.28	-1.51%	-1.65%	+0.38%
경기소비재	895.51	-0.23%	-2.98%	-3.57%
필수소비재	556.21	-0.19%	-0.32%	-0.09%
헬스케어	1,093.08	+0.24%	-1.19%	+2.69%
금융	466.15	-0.34%	+1.34%	-0.57%
IT	1,281.78	+0.35%	-3.51%	-1.65%
커뮤니케이션	156.45	-0.18%	-2.55%	-0.05%
유틸리티	275.50	+0.42%	+2.07%	+0.91%
부동산	199.69	+0.38%	+0.06%	-3.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기술주에 대한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47% MSCI 신흥 지수도 0.37%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1.2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일(월) 미 증시는 기술주가 여전히 ‘스파이칩’ 이슈 여파로 나스닥이 하락 했다. 오늘도 관련 이슈가 지속되며 관련주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며 산업재가 부진했다. 특히 PPG 가 관세 발효로 인한 투입비용 증가 여파로 실적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향후 관련 이슈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왔던 미국 국채금리가 매패 성향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하락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더불어 브렉시트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제유가가 또한 미국 산유량 감소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한 점도 우호적이다. 더 나아가 월요일 급락했던 중국 증시가 화요일에는 안정을 찾은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국 기술주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주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탈리아 정부가 2019 년 재정적자 목표 변경을 거부하는 등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상승 또한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독일 산업생산 둔화

9 월 미국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108.8) 이나 예상치(108.9) 보다 둔화된 107.9 로 발표되었다. 무역분쟁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추정한다.

10 월 유로존 Sentix 투자자 신뢰지수는 전월(12.0)이나 예상치(11.7) 보다 둔화된 11.4 로 발표 되었다.

8 월 독일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 했다. 이는 전월(mom -1.3%) 보다는 양호했으나, 시장 전망치(mom +0.4%)를 하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함께 허리케인 여파로 일부 해양 시추시설에서 작업자를 철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IEA 사무총장이 이란의 산유량이 하루 평균 8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지역의 산유량 감소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IMF 가 무역분쟁 여파로 글로벌 성장을 하향 조정한 점은 상승을 제한 했다.

달러화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유로화가 이탈리아 정부가 2019 년 재정적자 목표 변경을 거부한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폭이 제한되자 달러화 또한 약세가 제한되었다. 엔화는 달러 약세 및 글로벌 성장을 하향 조정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제금리는 매파 성향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앞으로 3 번의 금리인상은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연준이 목표로 한 완전고용과 물가에 거의 도달 했다”라고 언급하며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힘입어 하락 했다. 더불어 IMF 가 글로벌 성장을 하향 조정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농산물은 무역분쟁 격화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8%, 철근은 0.7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4.96	+0.90	-0.36	Dollar Index	95.677	-0.09	+0.18
브렌트유	85.00	+1.30	+0.24	EUR/USD	1.1495	+0.03	-0.46
금	1,191.50	+0.24	-1.28	USD/JPY	112.96	-0.24	-0.61
은	14.400	+0.50	-1.99	GBP/USD	1.3144	+0.41	+1.27
알루미늄	2,056.00	-0.53	-2.93	USD/CHF	0.9916	-0.10	+0.78
전기동	6,282.00	+1.68	+0.03	AUD/USD	0.7104	+0.37	-1.17
아연	2,678.00	+2.41	+0.49	USD/CAD	1.2947	-0.14	+0.97
옥수수	364.50	-0.55	-0.82	USD/BRL	3.7231	-1.49	-5.53
밀	515.00	+0.19	-0.82	USD/CNH	6.9167	-0.06	+0.45
대두	863.00	-0.78	-0.35	USD/KRW	1132.70	+0.20	+2.11
커피	113.15	+1.16	+5.11	USD/KRW NDF1M	1131.23	-0.24	+1.2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203	-3.03	+13.94	스페인	1.598	+0.90	+6.10
한국	2.442	-0.30	+8.70	포르투갈	1.970	+0.60	+7.50
일본	0.161	+0.60	+3.10	그리스	4.558	-5.30	+28.10
독일	0.549	+2.00	+12.70	이탈리아	3.472	-9.20	+2.40